



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창래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 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58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2년 11월 30일(수)

관향 청송에서 ‘소현왕후 추모 헌다례’ 봉행!

제16회 청송사과축제 개막행사로 진행...초헌관 심대평 대총회장, 현화 심우섭 안효공종회 부회장

청송군 최대 이벤트인 제16회 ‘청송사과 축제’에서 ‘소현왕후 추모 헌다례’ 의식이 개막행사의 첫순서로 봉행되었다. 심대평 대총회장은 이 행사에 초헌관을 맡아 추모의 뜻을 밝혔다. 청송사과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하나로 이번에 전국에서 40만의 인파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심우섭 안효공종회 부회장, 심능광 대총회 부회장(청송), 심홍섭 악은공종회 부회장, 심상철 이사, 심종택 청송노인회장, 심상억 문화이사, 심규섭 오산사복지정공종회 총무 등 많은 일가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헌화했다. 그 외에도 윤경희 청송군수, 이성우 청송문화원장, 김희국 청송지역 국회의원, 권태준 군의장, 신효광 도의원, 심상휴의원, 정미진(심부섭씨의 부인)군의원 등 청송지역 주요 인사들이 소현왕후를 추모하는 헌관 및 헌화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청송군 주최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현비암 앞 용전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경북 청송군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앞 특설무대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 심덕부 수도서울 공적 찾기 시동!

10월 18일 청성백(휘, 덕부) 선조의 경복궁과 종묘의 건립에 관한 서울시의 공적찾기를 위해 심미경 서울시의원과 심석호 서울시청 사무관의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4세조 청성백께서는 고려 말 문하시중을 역임한 재상으로, 이성계를 도와 위화도 회군에 참여하여 조선 건국을 주도하였다. 조선 건국 후 한양 천도를 결정하자 신도궁궐조성도감의 판사 직에 올라서 궁궐(경복궁)과 종묘의 건립을 지휘했다. 청성백께서 당시 수도 한양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는데 이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어 서울시 차원의 공적 찾기 사업을 함께 추진기로 한 것이다.



왼쪽부터 심상억 문화이사, 심미경 서울시의원,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원, 심재금 前 김포한강 신협본점 이사장, 심석호 서울시 사무관(2020년시행 서울시지방행정고시 합격)

대총회 발전위원회 점검회의 8대사업 마무리 박차!

11월14일 대총회 발전위원회(위원장 심상균)는 제6대 심대평 대총회장 취임시 선정한 대총회 8대사업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그간 추진성과는 2019년 청송에서 개최한 한마음대회, 도원수 심덕부 선조의 공적 바로잡기를 위한 진포대첩기념비 재건립, 청심장학회 설립 운영, 13상신승조사업 추진, 홍보 활성화, 달려제작, 청장년층 참여를 위한 SNS시스템 구축 등이 보고 되었다. 향후 과제인 서울학사 및 역사박물관 건립과 찬경회관 이전사업, 종재 전수조사 및 측량 추진, 심문 여성과 청장년층의 이사회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대총회 회장단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중점 추진기로 했다.



앞줄 왼쪽부터 심상조 재산관리위원장, 심상균 발전위원장, 심대평 대총회 회장,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익섭 달력디자인위원장, 둘째줄 왼쪽부터 심상억 발전위원회 간사, 심창래 홍보편집위원, 심규정 재무이사, 심규선 홍보편집장, 심보균 前 행정안전부 차관, 심달훈 대총회 감사, 심연태 총무이사

자수성가한 심대실 일가(따님) 장학기금 1천만원 쾌척!

지난 10월 14일 심대실 일가께서 대총회를 방문하여 심대평 대총회장께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실 일가는 청송심문의 후손으로서 그동안 소신껏 살아온 인생관과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대실 일가는 평소 우리 사회를 위해 꼴벌처럼 유익하게 살아왔기에 이제 “청송심씨 여식으로서 문중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옛날 어릴적에 집안 어른들로부터 ‘청송심씨는 깨끗한 가문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끗한 가문에서 올곧은 인물이 나오면 좋겠다’며 문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심대평 대총회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심대실(26세손, 75세)일가

2022년을 장식한 청송심문 10대뉴스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 등 나라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송심문은 30만 일가들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한뜻으로 결집하여 송조돈독의 정신을 한층 드높인 한해를 보낼수 있었습니다. 청송심씨종보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을 보내며 올 한해 심문 일가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10대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① 도원수 심덕부의 역사를 바로 잡다!

4세조인 심덕부 선조께서 진두지휘한 진포대첩 기념비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았다. 진포대첩은 고려말 1380년에 진포(지금의 군산)에서 심덕부가 도원수가 되어 수하에 상원수 나세, 부원수 최무선과 함께 화약무기를 최초로 사용하여 왜적선 500척을 괴멸시키는 대승을 거둔 해전이다. 군산시는 1999년 개항100주년을 맞아 성산면 금강시민공원 안에 진포대첩 기념탑을 세우고 '진포대첩의 유래'라는 기념비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최무선 장군이 나세, 심덕부와 더불어" 라고 표현해 마치 심덕부가 최무선의 부하이고 나세보다 아래인 것처럼 잘못 기술하였다. 이에 대종회에서는 설명문의 오류를 바로 잡기로 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일가들과 힘을 합쳐 군산시에 잘못 기술된 내용의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심덕부 장군의 동상 건립도 건의하였다. 그 결과 군산시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바로잡은 내용으로 진포대첩 기념비를 재건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② 관향 청송에서 소헌왕후를 추모하다!

대종회 심대평 회장이 청송에서 거행된 '소헌왕후 추모 헌다례'의 촛불을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 청송읍 소헌공원에서는 '2022년도 제16회 청송사과축제' 개막식 첫 순서로 '제1회 소헌왕후 추모 헌다례'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심대평 회장은 초헌관을 맡아 소헌왕후 추모를 위한 촛불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소헌왕후의 친정 아버지인 안효공(휘,은)을 모시는 안효공종회의 심우섭 수석부회장 등 많은 일가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헌화하였다. 그 외에도 윤경희 청송군수 등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하여 헌화하고 소헌왕후를 추모했다.

③ 초대 문장(門長)에 심정구 인수부윤공파종회 명예회장 추대!

대종회에서는 문중의 큰어른을 모시는 문장(門長)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문장에 문중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심정구 인수부윤공 명예회장을 초대 문장으로 추대하였다. 심정구 문장은 인천지역 최대의 향만 물류기업을 일으킨 사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4선의 걸출한 정치인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문장의 형님되시는 심명구 회장은 28년간 대종회장을 맡으면서 대종회의 기틀을 놓았으며, 문장께서도 오랜기간 인수부윤공 회장을 맡아 문중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심정구 문장은 인터뷰에서 "초대 문장으로서 일가들에게 듣고 생각한 바를 대종회에 잘 전달하여 문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보조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종보 제157호 2022.7.31.발행)

④ 도예명인 심수관... 424년만에 김포 선영을 참배하다!

일본에서 세계적인 도예명가로 성공한 심수관가의 주인인 15대 심수관이 조상의 뿌리를 찾아 김포 선영을 방문했다. 그의 선조인 심당길(본명, 찬)이 정유재란 중에 일본으로 끌려간지 424년 만이다. 그는 심당길의 부친이 12세조 심우인(沈友仁)이며, 묘소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 문중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후 지난 7월 9일 15대 심수관은 선영이 있는 김포땅을 밟고 감격스럽게 선조묘소를 참배하게 되었다. 이번 심수관 김포귀향 환영행사에는 심대평 대종회장, 심남섭 도사공종회장, 심재갑 곡산공종회장, 심형찬 수찬공종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일가들이 함께하여 감동을 나누었으며 동아일보, 일본NHK, 아사히 등 30여개의 국내외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였다.

⑤ 자랑스런 13정승...2023년 달력으로 부활하다!

조선의 통치체제 중심에는 의정부(議政府)가 있어서 국정을 총괄하고, 백관을 통솔하였다.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의정부 3정승은 조선시대의 으뜸벼슬이었으며,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이었다. 그중에서도 영의정은 별종의 별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모든 권문세가에서는 그 별을 잡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3정승은 363명이 나왔는데 청송심문에서는 13명이 배출되어 전체 가문중에 4위이며, 영의정은 9명이 나와 왕족인 전주이씨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명실상부한 名門世族이라 할수 있음에도 우리 후손들은 훌륭한 선조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번에 청송심씨 대종회에서는 자랑스런 13相臣을 2023년 달력에 모시어 재조명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가들이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문중의 고귀한 가치와 자긍심을 공유하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⑥ 심문의 미래, 국가의 동량...제4기 청심장학생 14명 선발!

재단법인 청심장학회(이사장 심대평, 운영위원장 심오택)에서는 지난 3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제4기 장학생 14명 선발을 승인하고, 4월 16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4명중 고교생이 6명, 대학생 4명, 대학원생 4명이며 외손도 4명이 포함되었다. 고교생에게는 연간 3백만원, 대학(원)생에게는 연간 5백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번 4기에는 모두 34명이 지원했으며 학업성적, 인성, 발전가능성,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⑦ 청송 시조묘역 진입로공사 청송군비 1억 2천만원 확보!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청송읍덕리보광사도로확장공사' 2022년도 사업비로 7천 만원을 책정하고, 정리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1억 2천만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공사는 내년 3월경 착공한다. 이는 대종회에서 보광사 극락전(보물제1840호)과 만세루(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09호) 등 문화재 보존구역에 산사태와 해빙기 붕괴 우려에 대한 수해대책을 2020년 8월 25일 청송군청에 요청한 결과이다. 이번 성과에는 보광사 무구 주지스님, 청송군의회 심상휴, 정미진(심부섭의 부인)의원과 심상복, 심훈섭 청송유사 등 많은 일가분들이 힘을 보탰다.

⑧ 청송심씨 대종회 50년사 발간!

대종회가 1971년 현재의 모습으로 창립한 이래 50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종회는 사무실로 '찬경회관'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는 '청송심씨종보'를 발간하여 30만 일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안성의 3세조 청화부원군 위토 19 필지(공시지가 120억원)를 대종회 명의이전 조치하였고 2017년에는 숙원사업인 4세조 청성백 선조의 재실을 건립하였다. 2019년에는 청송에서 전국의 일가 5천여명이 모여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송조돈독 정신을 고양하고,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크게 떨쳤다. 이렇듯 대종회 50년간의 성과와 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고자 2011년 발간한 40년 약사에 이어 이번에 50년사(1971~2021)를 발간하게 되었다.

⑨ 안동 '沈판서묘' 1975년에 이어 다시 규명 시동!

경북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산37번지 우륵산 기슭에는 오랜기간 지역민들에 의해 '심판서 묘'라고 구전되어 온 4기의 묘소 흔적이 있다. 이 묘소들이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양식어어서 그동안 우리 문중에서는 4세조 악은공 심원부, 5세조 영동정공 심천운, 6세조 석촌공 심효상의 묘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대종회에서는 본격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대평 회장의 지시로 지난 4월 1차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탐방을 실시했다. 석촌공종회(회장 심상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판서묘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종회와 협조체제를 통해 자료공유와 토론을 가졌다. 지난 6월 13일에는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현장답사를 실시한후 향후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⑩ 제8회 전국 지방선거 심문 당선인 세미나 및 축하회 개최!

대종회는 지난 6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KW컨벤션센터에서 '자치, 분권 리더쉽 : 지방정치시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심문 일가들을 위한 워크숍 및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 당선인 8명과 내빈으로 여러 문중 인사들이 참석했다. 심대평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4세조 청성백 할아버지가 남기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기뻐하지 말고, 백성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올바른 지역일꾼으로 성공하길 당부했다.

청송신문 주요인사

송년사



심재구 인수부윤공파총회장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새해 계묘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 일가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가 여러분! 지난 여름철의 장마와 태풍의 피해,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지전의 여파로 인한 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환율급등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등으로 인하여 영위하시는 사업과 가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많이 수그러드렸

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지구촌의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었고 일상 생활의 패턴까지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송신문의 일가분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온 가족의 슬기로운 지혜로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저는 금년에 인수부윤공파총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항상 송조돈목(崇祖敦睦)의 마음으로 미력(微力)하나마 종사(宗事) 업무에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수부윤공파총회는 6세조이신 양혜공(良惠公) 할아버님의 재실(齋室)을 2020년도에 새로 건축하여 준공하였으나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준공기념 행사를 미루어 왔던 바, 계묘년 새해에는 준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임인년의 미진한 일들은 잘 마무리하시고, 계묘년 새해에는 일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민 임실군수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청송심씨 대종회가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를 통해 일가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사상 첫 3선 임실군수'에 당당하게 당선되었고, 6월 25일에 대종회가 마련해 주신 '심문(沈門) 가족 당선인 워크숍 및 축하회'에서 너무나도 큰 축하와 격려를 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실군은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 잘 알려져 있듯이 제가 10여년 동안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천만송이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 축제'를 개최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제1호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옥정호에 대한민국의 보물섬인 봉어섬을 연결하는 420m 출렁다리와 생태공원 조성 등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1,500만 애견인들의 성지로 오수 세계 명견 테마랜드를 조성하는 등 임실을 '대한민국 반려문화 특화지구'로 도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항시 가문의 영광과 자부심을 마음에 새기고 막중한 공직에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일가 어른신! 그리고 사랑하는 일가 여러분!

모두 2022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상균 대종회 고문 겸 발전위원장

2022. 임인년은 3년만에 일상이 회복되고, 沈門의 위상도 한층더 도약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642년 전 4세조 청성백 할아버지께서 도원수를 맡아 용맹을 떨치신 진포대첩 기념비(記念碑)를 군산 금강시민공원에

새로 건립케하고, 자랑스런 선조 13상신의 사적을 소재로한 2023년 계묘년 달력을 제작하는 송조사업 시행은 沈門만의 전통적 가치입니다.

뿐만아니라 지파총회와 일가간에 소통과 공감의 매개체인 청송심씨종보는 격조높은 정보소식지로 자리매김했고, 청심장학회 인재발굴 육성사업은 沈門의 자랑이고 희망입니다.

이러한 문중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일가분께 대종회 발전위원장으로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2023년 계묘년에는 더 큰 전진을 소망하며 국내외 30만 일가분 모두가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심규선 전 종보편집장

한 해가 간다. 동시에 인연(因緣)도 간다. 그 인연은 우연히 찾아왔다가 우연히 간 것 같다. 2019년 한마음대회를 앞두고 우연히 종보 제작에 간여하게 됐다. 어떻게 하면 일가들에게 이 행사를 널리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대종회에 한마음대회를 소개하는 '특별종보'를 만들

어 배부하면 어떻게겠느냐고 의견을 낸 것이 그만 종보편집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그 후 격월로 나오는 종보를 3년 정도 만든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책임을 내려놓는 계기도 우연처럼 찾아왔다. 팔자에 없는 '공직'을 맡게 되면서.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어쩌면 필연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내가 신문기자 출신이기에 종보를 맡게 된 것이고, 내가 일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공직을 맡게 된 것이므로, 우연이 쌓이면 필연이 되는 것일까.

한 해가 간다. 그러나 가지 않는 것도 있다. 청송심씨를 사랑하는 일가들의 마음이다. 한 해를 보내며 종보를 만드는 동안 일가들이 보내준 애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일가들의 사랑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국내외 30만 일가와 청송심씨종보 애독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임인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송심씨종보는 청송신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30만 일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즐거운 소식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청송심씨종보 편집위원 일동

심판서 묘역 탐방기 연재 ②

연재 순서

1회(중보 157호, 2022년 9월)

- 1. 두 차례 조사한 '안동 심판서 묘역'
- 2. 방치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묘 4기
- 3. '심판서 묘'와 관련한 사료와 전설

2회(중보 158호, 2022년 11월)

- 4. 심원부 선조는 두문동 72현인가
- 5. 사료만으로 추적한 심원부, 심천운, 심효상의 묘
- 6. '심판서 묘역'과 '추정 묘역'과의 비교

3회(중보 159호, 2023년 1월)

- 7. 묘역의 주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8. 탐방기 연재를 마치며

1975년에 이어 다시 안동 '沈 판서묘' 규명 시동!

인정한 민안부(심원부 선조의 고모부)에게 보낸 시 두 편과 「두문동록」 및 「두문동서원지」에 이름이 올라있는 점, 아들인 심천운의 '유사' 내용으로 볼 때 두문동에 들어가 순절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영남문헌록」에는 “두문동에 들어가 서거하신 심원부를 위하여... 태조 이성계가 임금 이 되기 전 맺은 옛 의리로 관리를 파견해 치제케 했다”라는 결정적인 기록이 있다.

심원부가 쓴 <두문동에 들어가며> 라는 시에는 “해는 저문데 해바라기는 기운 해를 바라보고/궁궐 빈터에 심은 기장 어저러이 흩어져 있네/옛 관대 묶을 것을 구하고/탄식하며 두문동에 들어가네”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5. 사료만으로 추적한 심원부, 심천운, 심효상의 묘

① 심원부, 심천운, 심효상의 사료 정리

규명위원회는 '심판서 묘역'에 전해 오는 이야기와는 별도로, 사료에만 입각해 심원부 이하 3대 묘를 추적해보기로 했다.

참고한 사료는 심원부, 심천운, 심효상 3대 묘소를 찾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료들로서,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지리지), 심원부 신도비명, 경의재장건기, 심천운 제단비명, 심효상 행장, 심효연 향단비명, 심태산 유사, 심손 묘갈명 등이 그것이다.

이중 신뢰도가 높은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지리지), 7세조 심태산(호 농천) 유사, 8세조 심손(호 월헌) 묘갈명을 주로 이용하고, 다른 사료는 참고로만 활용했다. 심태산은 묘소, 재산 등에 대해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 불에 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② 심원부와 그 후손의 주요 행적 (가) 심원부는 호가 약은으로 전리판서를 역임하고 개성 두문동에 들어가 순절했다. '나의 입산일(入山日)을 사일(死日)로 하라'는 유명(遺命)을 남겼다. (나) 심천운(심원부의 아들)은 개성 선영(先塋) 마을에 숨어 살며 주경야독을 하면서도 심원부가 두문동에 입산한 날이면 서쪽 두문동을 향해 망배하고 통곡했다. 심덕부 등 개성 청문동에 모여 살던 심씨 집안이 한양으로 이주할 때 함께 이주해 서울 청파동에서 살았다. 나이가 들자 장자인 심효상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 이듬해 서거했다. 아들인 심효상의 행적으로 볼 때 산청(산음)에 정착했거나, 잠시 안동을 거쳐 산청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영동정(令同正)을 지냈다.

(다) 심효상(심천운의 아들, ?~1431)은 호가 석촌(石村)으로 부모가 나이가 들자 한양에서 산청에 내려와 봉양했다. 이듬해 아버지 심천운이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렀고, 아우 만우공(晩愚公) 심효연이 한양에서 내려와 청송에서 살기로 하여 전송할 적에 '백수간운(白首看雲)'이라는 글을 남겼다. 산청에서 외아들 태산(太山)을 낳았으며, 손자인 손(遜)과 홍(洪)도 산청에서 출생했다.

(라) 심태산(심효상의 아들)은 1413년 2월 3일에 산음에서 출생하여 1435년 5월 11일에 돌아가셨다.

향년 23세. 자는 자고(子高), 호는 농천(弄泉)으로 부사과(副司果)를 지냈다. 1431년에 아버지상을 당하고, 1433년에 산음 석담촌(山陰 石峯村)에서 안동 재산(安東 才山, 현재 봉화군 재산면)으로 이사했다. 1434년에 청송 월명촌(靑松 月明村)으로 다시 이주했다. 청송은 선대의 여러 산소가 있는 고향이고 또 숙부인 참판공(심효연)이 사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보인다. 돌아가시던 1435년에 장남 손(遜)은 여섯 살, 차남 홍(洪)은 세 살이었다. 가승에 따르면 이해 7월에 화재(火災)로 문서와 서적이 모두 타서 없어지고 옛 종이 두어 폭(幅)만 남았으나 이마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옛일의 만의 하나도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마) 심손(심태산의 아들)은 1430년 8월 20일 출생해 1486년 5월 6일에 돌아가셨다. 산음 석담촌 집에서 태어나 여섯 살에 아버지를 따라 청부(靑虯)의 월명촌(月明村)으로 이사했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의 상을 당했다. 종조(從祖)인 청천군(靑川君) 심효연은 “가문을 맡길 사람은 이 아이”라고 했다고 한다. 세종조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단종이 즉위하자 현릉참봉을 지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으며 스스로 지문(誌文)을 지었고, 타계한 후 청송군 거대곡(巨大谷) 부진원(負震原)에 장사지냈다. 장남은 필륜(弼倫, 1454~1541)으로 호군(護軍)이며 차남은 필서(弼瑞)이다.

③ 사료에 근거한 심원부, 심천운, 심효상의 묘소 추적 방법과 그 결과

(가) 묘소 추적 방법 현재 묘소에 대한 직접 사료는 소실되어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료와 당시 상황 및 문화 등을 고려해 문리해석, 반대해석, 보정해석, 논리해석, 유추해석 등의 방법으로 추적한다.

(나) 묘소 추적 결과 ① 심원부 묘 추적

아들인 심천운의 유사를 보면 부친인 심원부가 두문동에 들어가신 후에도 일정 기간 개성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설명했듯 매년 부친이 두문동에 입산한 날에 서쪽을 향해 절을 하고 통곡한 것으로 보아 부친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한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아 개성 또는 한양에 부친의 옷가지나 유품 등으로 부친의 묘소를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물론 시신이 있었다면 화장한 후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산청(또는 안동을 거쳐 산청)으로 내려온



10월 30일 약은공 차남 현령공 천주 할아버지 재단 하에서 심우영 전 총무처장관(마이크 드신 분)이 안동 '심판서묘'의 향후 대책에 관한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4. 심원부 선조는 두문동 72현인가

① 두문동 72현에 대하여 '두문동 72현'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문동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숫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조선 건국 후 두문동으로 들어가 은거한 사람이 있던 것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문동 72현은 꼭 72명이 아니라 다수의 현인(賢人)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이성계는 고려의 왕족인 왕씨 일족을 잡아 죽인다. 이어 고려에 충성하는 신하와 학자, 무인들도 불로 태워 죽인다. 이것이 소위 '1394년 두문동 화형 사건'이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던 옛 지명이다.

이런 사건을 겪으며 태학생 임선미 등 72인이 두문동으로 들어가 동서 양쪽에 문을 세우고, 빗장을 걸어 잠근 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두문동 72현'의 유래이다. 정사(正史)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총령록(奎章閣忠烈錄)의 「두문동 제선생실기」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려조총령록(高麗朝忠烈錄) 발문(跋文)도 비슷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② 심원부 선조는 두문동 72현의 한 분 두문동 72현은 조선 후기 영조대가 돼서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그 이전에는 금기어였다.

1783년(정조 7년) 조선은 개성 성균관에 표절사를 세워 두문동에 들어갔던 조의생, 임선미, 맹씨(이름 실전)를 처음으로 추모했으며, 정조 말기에서 순조 시기에 박문수, 민안부, 김충한, 성사제, 이의 등 55명을 추가로 배향했다. 여기에 심원부 선조(이하 '선조'라는 호칭 생략)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심원부는 나라에서 두문동 은거 인사로



'심판서묘'에 참배하는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

심판서 묘역 탐방기 연재 ②

안동 沈 판서 묘, 600년의 수수께끼를 추적하다.

다. 이때 부친의 묘도 함께 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남으로서 부친의 묘를 개성이나 한양에 두고 홀로 내려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은공의 묘를 어디에 썼을까. 심천윤이 소유했거나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토지(임야)가 가장 유력하다. 그런 토지를 살펴보자.

먼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안동 지역의 토지가 있을 것이다. 안동 지역의 토지는 부친의 어머니인 3세조 배위 김씨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큰아버지인 심덕부와 나눠서 상속을 받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남 산음(산청) 토지가 있을 것이다. 2세조 심연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3세조 심용을 거쳐 이 역시 큰아버지인 심덕부와 나눠서 상속을 받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북 청부현(청송) 토지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청부현 토지 역시 2세조 심연으로부터 3세조 심룡을 거쳐 상속받은 토지이다.

이중 어느 곳이 가장 유력할까.

사료로 보면 심천윤은 늙어 경상도로 내려올 때 청송에는 가지 않았으며, 산청도 마지막에만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7세조 심태산의 행적을 보면 산청도 심원부의 묘를 모신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뒤에서 더 살펴보겠다).

그렇다면 심원부의 묘소는 본인이 태어나고, 심천윤이 장남으로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안동이 유력해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3세조 심용 선조의 배위 김씨의 상속 토지 중에 산(임야)에 모신 것으로 보인다.

㉠ 심천윤 묘 추적

심천윤은 장남인 심효상과 산음현(산청)에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돌아가신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심천윤은 어째서 심효상과 안동에 정착하지 않고, 산청에 정착했을까.

이는 당시 지역별 생활 여건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심천윤이 경상도에 내려온 시기는 조선 초 태종 때이다. 당시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1424년 11월에 시작해 1432년에 완성한 세종실록 지리지(경상도지리지)가 있다. 1425년부터의 경상도지리지 중 청송, 안동(심씨 소유 재산이 있는 재산현), 산청(산음현)의 호수, 인구, 농사 여건 등을 살펴보면 세 지역 중상대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산음현이고, 다음은 청송(송생현)이며, 가장 열악한 곳이 안동 재산현이었다.

조선 초기 경상도의 호수, 인구, 성씨

지역	호수	인구수(명)			성씨	비고
		남자	여자	계		
청부현	36호	215	158	373	土姓:沈,金,全,蔣,申	
송생현	50호	343	363	707	土姓:尹,盧,金,來,姓:金,朴,李,村,姓:鄭	
안덕현	48호	255	254	509	土姓:金,李,孫,全,蔣	
계(청송군)	134호	813	776	1,589		
재산현(안동대도호부)	32호	-	-	157	續姓:尹	
산음현(진주군)	257호	-	-	1,138	土姓:尹,徐,盧,沈,余,來,姓:宋,陳,續姓:崔,楊,部,曲,인,품,의,姓,은,書,吳,가,있,고,來,姓,은,宋,續,姓,은,陳,이다	공양왕 때 監務를 들

심천윤은 아들 심효상과 안동에 먼저 와서 정주 여건을 살피다가 아버지 심원부의 묘만 안동으로 이장하고 산청으로 내려갔거나, 애초부터 부친 묘만 안동에 모시고 두문동에서 낙향한 민안부 선생(청송심씨 2세조 심연의 사위) 집안이 살고 있는 산청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안동 심판서묘 인근에 위치한 남흥재사...4세조 악은공 할아버지와 동문수학한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南暉珠, 1326~1372) 재실

그러면 심천윤 묘는 어디에 있을까.

돌아가신 후 곧바로 부친이 있는 안동으로 모셨거나 산청에 잠시 모셨다가 안동으로 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인 태조 이성계 때부터 일족의 사망자는 같은 산에 모시는 족장을 권장했음을 고려하면 함께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 심천윤의 묘가 산청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뒤에 심효상의 묘소 추적 때 다시 살펴보겠다.

㉡ 심효상 묘 추적

7세조 심태산의 행적과 배위의 사망시기로 볼 때 산음현(현 산청군), 안동 재산현(현 봉화군), 청부현(현 청송군)은 부친인 심효상을 포함한 세 분 선조를 모신 장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심태산은 산청에서 안동 재산현(현 봉화군 재산면)으로 이사한다. 장자이며 장손이 조상 묘를 산청에 두고 이사를 간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산청에는 선조 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간접증거이다. 청송에 모시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선조 묘를 당초에 청송에 모셨다면 안동 재산현으로 가지 않고 청송으로 직접 이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효상의 묘는 부친과 조부가 함께 있는 안동에 모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이다.

㉢ 심원부 이하 3대 묘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조건

규명위원회는 당시 사료와 시대 상황 등을 토대로 심원부 등 3대 묘가 안동 지역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산청군(산음현), 봉화군(재산현), 청송군(청부현)은 7세조 심태산의 행적과 배위의 사망시기, 그리고 8세조 심손의 묘갈명 등으로 볼 때 세 분 선조의 묘가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안동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며, 3대 묘로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

을까.

이를 위해서는 여말선초의 경제와 사회적 제도 및 관행, 장묘 문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가) 3세조 심용의 배위 김씨의 상속 토지 중 산(임야)에 모셨을 것이다.

(나) 세 분과 관련한 묘의 유형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의 양식일 것이다.

(다) 주변에 절이나 절터 또는 절과 관련한 지명이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주변의 절을 원당이나 수호사찰로 삼아 해마다 기일재를 치렀기 때문이다.

(라) 형태가 같은 3기 이상의 묘가 멀지 않은 곳에 몰려 있을 것이다. 조선 초에는 일족의 사망자는 같은 산에 모시는 족장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마) 풍수를 보고 못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제일 좋은 자리에 심원부를, 그 다음 자리에 심천윤을, 그 다음 자리에 심효상을 모셨을 것이다.

(바) 당시에는 분묘금한보수제(墳墓禁限步數制: 품계에 따라 분묘의 크기와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어 벼슬에 따라 묘의 크기가 달랐을 것이다.

위의 조건을 전제로 하고, 심원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묘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심판서 묘역'과 '추정 묘역'과의 비교

'안동 심판서 묘역'을 현장 조사한 결과와 사료만으로 추적한 묘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안동 심판서묘역	사료만을 토대로 추적한 묘역
소재지	안동시 외동면 장귀리(가장실)	안동(심원부 묘진속토지)
묘의 수	4기	3~5기
묘의 크기	큰 묘 1기, 중간 묘 2기, 작은 묘 1기	묘의 크기가 품계에 따라 각각 달랐을 것이다.
풍수 고려	풍수 반영	풍수 반영
참고할 만한 묘	청송심씨 3세조 중대소, 3세조 심룡, 4세조 심덕부 묘와 유사	(추정 불가)
주변에 절, 절터, 절터 유물 존재 여부	절	인근 절을 원당, 수호사찰로 삼았을 것이다.



왼쪽부터 은섭, 상암, 남규, 상조, 대평 대중회장, 재오 규명위원장, 우섭 안효공종회부회장, 재창 안동대 교수

규명위원회 인적구성

- 위원장 재오 송소고택 장주
- 위원 종래 안효공과효창공종회
- 장섭 악은공종회 총무
- 광섭 전 악은공종회 총무
- 준섭 석촌공종회 총무
- 상벽 석촌공종회 재무
- 상헌 청송사학연구위원
- 남규 전 청송군 사무관
- 상규 대구 농축협지점장
- 특별위원 상조 석촌공종회장
- 재열 안효공과·교수
- 상억 대중회 문화이사

(다음 호에 계속)

종회탐방 특집...청헌공파의 공주입향 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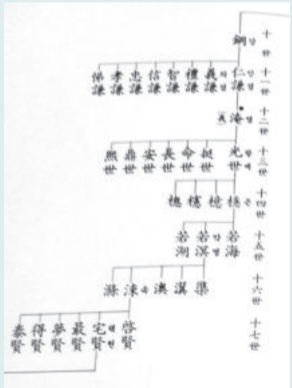
심대평 대표회장

지난 9월 24일 충남 공주시 공주문화원 강당에서는 공주문화원 주최로 '공주 청송 심씨의 공주 입향과 인물 유적'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공주 지역 유림과 향토사학자 및 전국의 청송 심씨 지파총회의 일가들이 많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심대평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공주시가 '우리 조상 뿌리 찾기' 사업을 통해 공주를 텃밭으로 하는 저명 성씨의 입향과 인물 유적의 발자취를 학술적으로 연구 발표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고 치하했다. 심대평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주문화원이 이번 행사에 청송심씨 청헌공파를 선정하여 뿌리 찾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준 것에 대해서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부로 나누어, 1부는 이준원 공주문화재단 대표가 '청송 심씨 청헌공파의 공주 입향과 정착', 2부는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청헌공파의 인물 배출', 3부는 홍제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주에 남은 청송심씨의 문화유산'을 연구 발표했다.

청헌공 공주입향 학술세미나 취재 연재 ①

종보 158호에는 청헌공 심택현 선조에 관한 인물연구, 공주 입향시기와 배경, 입향 연고와 정착, 조선시대 인물(후손) 일부를 싣고, 종보 159호에 조선시대와 근현대 인물(후손)과 공주에 남은 청헌공파의 문화유산 등을 연재합니다.

1. 공주 입향조 淸獻公 심택현 선조는 누구인가?



심택현(1674 - 1736)의 자는 여규(汝揆), 시호는 청헌(淸獻)이다.

청헌공은 26세가 되던 1699년(숙종 25)에 진사시와 정시문과에 을과로 연이어 급제한 인재였다.

1701년 숙종조에서 예문관 검열에 등용된 후 성균관 전적, 병조정랑,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장령을 거쳐 진안·문의·경산의 수령을 지냈다. 1711년 장령 재직 중에는 당쟁의 폐해에 따른 탕평책을 역설하였다. 그후 집의, 교리, 강원도 관찰사, 광주부윤을 거쳐 대사간, 예조·호조·형조·이조참의를 지냈다.

1719년 강화부유수를 역임한 후 대사헌, 이조·호조참판, 대사성, 도승지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경종 즉위 후에도 이조·예조참판을 지내고 경기감사 재직 중에 당쟁으로 조정이 혼란스러워지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하자 이조참판에 다시 등용되었고 이어 공조·형조·예조·이조판서를 거쳐 우참찬,한성부판윤, 판의금·판돈녕부사, 좌참찬 등 주요 관직을 역임하였다. 1728년에는 이인좌의 난을 수습하는데 공을 세워 분무원종1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청헌공은 성품이 강직하여 소신에 맞지 않으면 출사하지 않았고, 늘 불의를 멀리하고 청백과 충직으로 일생을 보냄으로써 주위에 추앙을 받았다. 청헌공은 슬하에 5자를 두었는데 장남 심규는 해주목사를 역임했고 2자 심규는 영천군수를, 3자 심유는 형조정랑을, 5자 심수는 첨사를 역임하였다. 이 중에서 심규와 심규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2. 공주 입향 시기와 배경

청송심씨가 공주에 입향한 것은 18세기 초 청헌공 심택현(沈宅賢)一家가 의당면 울정리와 수촌리 일대에 터를 잡으면서부터다.

청헌공은 시조 문림랑공(심흥부)의 16세손이자 안효공 심온의 11세손이며, 온양공 심인겸의 6세손으로 '안효공파-온양공손 청헌공파'의 派祖로 一家를 이루어 이후 300여 년간 공주에 정착하게 된다.

심택현이 공주로 입향하게 된 계기는 소론과 노론의 당쟁 격화로 신축년(1721년)과 임인년(1722년)에 걸쳐 발생한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정변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심택현은 정치적으로 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소론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해지자 1722년경에 낙향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주 입향 연고와 정착

공주를 피화(避禍)할 곳으로 선택하게 된 연고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당시 교분이 두터웠던 재종숙 심부(沈溥, 광주부윤공 심충의 손자)의 주선이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주는 심부의 조부인 심충이 모함에 걸려 유배된 곳이었으며, 그 곳이 吉地임을 알고 사후에도 묘를 썼다. 이후 沈溥를 비롯하여 그 후손 들은 경상도 선산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공주에서 줄곧 거주하였다.

현재 울정에는 청헌공파의 종가가 있으며 바로 뒷산에 입향조인 심택현의 묘가 있다.

울정리의 남쪽은 천태산에서 흘러온 냇물이 정안천으로 합수되며 물길 주변으로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헌공이 공주에 입향한 후 장남인 심규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공주에 계속 세거해오고 있다. 이들 후손들은 선조의 명성을 이어받아 서울과 향촌 사회를 오가며 눈부신 활동을 통해 공주의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주요 인물 (후손)

<조선시대>

■ 심관지(沈觀之, 1720-1792)

청헌공의 손자이자 심규의 장남으로 자는 사빈(士賓)이다.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전국의 일가들(아랫줄가운데 심대평 대표회장)

1764년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 옥당에 올라 수찬에 재임중이던 1767년 중시에 다시 급제하였다. 그후 三司에서 교리, 헌납, 세자시강원 필선, 시간, 수찬을 지내고 1774년 사간원 대사간, 승정원 승지를 거쳐 병조참판에 올랐다.

■ 심풍지(沈豐之, 1738-1793)

청헌공의 손자이자 심규(沈鉞)의 차남으로 자는 사상(士常),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17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 병조정랑, 부수찬 겸 시강원문학 등을 지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홍문관 수찬, 교리를 거쳐 이듬해에 감시어사로서 관북지방의 재해상태를 감찰하여 대책을 수립케 하였다. 이어 이조좌랑, 지평, 이조정랑을 거쳐 1780년 이조참의에 오른 후 대사성, 이조참판, 대사간,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784년에는 대사헌으로서 정조의 개혁의지를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정조의 개혁을 반대해온 賊臣을懲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후 충청도 관찰사, 가순궁(嘉順宮)가례도감 당상, 도승지를 거쳐 1788년 예조판서에 올랐다.

■ 심능악(沈能岳, 1766-1844)

청헌공의 증손으로, 자가 유한(維翰)이다.

1814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지평, 수찬의주부윤을 거쳐 1822년 이조참의 1823년에 형조참판, 대사성,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함경도 관찰사에 이어 이조참판, 동지의금부사,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1830년 공조판서를 지냈다. 그후 이조·예조·병조판서를 거쳐 의정부 좌참찬,오위도총부 도총관, 판의금·판돈녕부사를 역임하고 1843년 기로소에 들어갔다.

■ 심의면(沈宜冕, 1808-1865)

청헌공의 현손으로, 자는 주경(周卿)이다.

1837년 참봉으로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1842년 황해도 암행어사로 나갔다. 1848년 홍문관 응교 승정원 승지를 지내고 1850년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이듬해 동지의금부사 겸 승지가 되었다. 1853년 충청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1855년 이조참판을 역임하고 1860년에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거쳐 형조판서에 올랐다. <다음 호에 계속>

- 연재에 도움 주신 분
- 심대평 대표회장
 - 심은석 전 교육부학교정책실장
 - 심명용 청헌공과공주총회 회장
 - 심우연 청헌공과공주총회 총무
 - 심재금 김포한강신협 본점 전 이사장
 - 심종래 종보편집위원
 - 심창래 종보편집위원

일가기업탐방 - 한국페이퍼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친위생 종이용기업체 - 한국페이퍼

국내 최초 자판기용 종이컵과 생수용 봉투컵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6년간 지속 성장해 온 각종 종이용기 제조업체



심행보 회장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국페이퍼 본사

종이컵과 생수용 봉투컵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였다. 그후 단계적으로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괄 생산공정을 완성시킴으로써 기업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를 통해 생수용 봉투컵을 국내 최초로 필리핀에 수출하였으며 지금은 미국,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등 여러나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어 외화 획득에도 일조하고 있다.

현재 한국페이퍼는 일회용 상조용품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 만족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품구성도 오랜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needs)에 따라 개인(B2C)과 기업(B2B)에 맞는 다양한 제품 구성을 확보하고 있다. 천연펄프로 만든 접시와 컵은 물론 기본품목으로 밥그릇, 국그릇, 접시, 음료수컵, 소독저, 스푼, 수저통 등 종합세트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일회용컵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다용도 컵과 함께 국그릇,밥그릇 등도 용도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국페이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최고의 품질을 향한 심행보 회장의 집념과 시대흐름에 맞는 상품전략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온 데있다. 환경친화적인 좋은 재료와 깨끗한 생산공정을 통해 고품질 제품을 출하함으로써 내수판매와 해외수출을 늘려온 것이다. 이렇듯 한국페이퍼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페이퍼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인증과 중소기업청 지정 이노비즈(INNO-BIZ)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III.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한국페이퍼

심 회장은 “나눔은 남과 나를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기회가 되는대로 주변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페이퍼는 매년 구리시 시립 ‘갈매 사회 복지관’에 자사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분기별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회사 인근의 도하1리, 도하2리 마을회관과

노인정에도 매월 한번씩 필요한 종이용기와 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행보 회장은 지성주사공과(5세조,심계년)의 21세손으로 항상 마음속에 송조돈목의 정신을 간직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심 회장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사 제품을 일가들에게 판매하거나 일가들을 통해 간접 판매(소개, 매칭 등)가 이루어지면 판매금액의 10%를 문중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심승식 내과전문의, 심종래 종보 편집위원, 심재희 우리은행 지점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행보 회장

IV. 미래 비전을 위한 후계 경영

심행보 회장은 일찌감치 2020년도부터 장녀 심수연을 공동대표로 세우고 경영 수업을 시키고 있다. 사업환경이 어려운 종이용기 시장에서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CEO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것이 한국페이퍼의 성장과 안정된 미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수연 대표는 회사를 존중과 신뢰가 넘치는 일터로 만들어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를위해 그녀는 “상사는 부하직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부하직원은 상사를 존중하며 동료 직원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경영후계자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심수연 대표는 “우리 회사는 고객의 요구로 탄생되었고 고객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미래 성장의 가장 큰 힘도 고객임을 잊지 않고 고객에게 항상 정직하며, 고객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젊은 CEO로서의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두분 공동대표의 열정과 경영철학을 보면서 한국페이퍼가 우리나라의 종이용기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취재:심종래 종보편집위원)



왼쪽부터 심재희 우리은행 지점장, 심행보 회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수연 대표, 이월우 심행보 회장 부인, 심종래 종보 편집위원

I. 심행보 회장의 경영철학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는 1996년 창립 이래 품질경영과 국민보건 위생산업에 기여해온 각종 종이용기 제조업체 한국페이퍼가 있다.

한국페이퍼는 1996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주요 생산품목은 종이컵, 종이용기, 종이접시, 종이도사리, 음료컵, 테이크아웃컵, 장례지원 소모품, 소주컵 등이 있다. 회사 경영은 심행보 회장과 심수연 대표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

설립자 심회장이 사업여건이 쉽지 않은 종이용기사업의 역경을 극복하고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데는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다. 그것은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었다.

한국페이퍼는 임가공(외주)없는 당사 일괄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최적화된 배송 시스템, 철저한 위생 관리, 신속한 A/S를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페이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는 달리 사용 후 고급 티슈나 위생지로 재활용되어 자원 낭비를 줄임은 물론 위생지 제조용 고지(폐지)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페이퍼 제품의 또다른 장점은 환경친화적 소재인 무황판 천연펄프를 사용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출고됨으로써 위생 안전성이 탁월하여 감염 등 전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성이 뛰어나고, 사용 편의성을 높여 생활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 시스템을 효율화하여 용기세척에 소요되는 물사용을 줄이고 세제 사용을 억제하여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였다.

II. 한국페이퍼의 성공 이야기

한국페이퍼의 전신은 대길산업이다. 1996년도에 설립된 대길산업은 당시 국내 최초로 자판기용

자랑스런 청송심씨 13정승...2023년 계묘년 달력으로 부활하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10명 이상의 정승을 배출한 가문은 6개에 불과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영의정은 왕족인 전주이씨를 제외하면 청송심씨가 가장 많습니다. 청송심씨는 또 왕비를 3명, 임금의 사위인 부마도 4분을 배출한 명실공히 명문가입니다.

조선은 본래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정치이념을 지향했던 왕조이고, 임금과 신하가 협치를 잘하려면 정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3정승은 우리 심문의 정치적 비중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달력에 '13상신'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곁으로 모심으로써 훌륭한 선조와 숭조돈독하는 후손이 시공을 뛰어넘어 간접대화를 하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달력에는 태조 이성계의 최측근으로 위화도 회군을 함께 함으로써 조선의 개국공신이 된 청송 심문의 중흥조(中興祖) 좌정승 4세 조 청성백 심덕부 할아버지를 필두로(표지), 조선 최고의 국모(國母)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왕비 소헌왕후의 부친인 영의정 5세조 안효공 심온 할아버지(1월), 고종의 오른팔로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격상시키면서 영의정을 역임한 22세조 청령공 심순택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12월), 청송심씨의 별인 13정승을 우리 곁으로 모셨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지: 좌정승 4세조 청성백 심덕부(沈德符, 1328~1401)
- 1월: 영의정 5세조 안효공 심온(沈溫, 1375~1419)
- 2월: 영의정 6세조 공숙공 심희(沈澮, 1418~1493)
- 3월: 영의정 9세조 총혜공 심연원(沈連源, 1491~1558)
- 4월: 좌의정 9세조 만취당상공 심통원(沈通源, 1499~1572)
- 5월: 좌의정 11세조 일송상공 심희수(沈喜壽, 1548~1622)
- 6월: 영의정 12세조 남파상공 심열(沈悅, 1569~1646)
- 7월: 좌의정 13세조 청원부원군 심기원(沈器遠, 1587~1644)
- 8월: 영의정 14세조 만사상공 심지원(沈之源, 1593~1662)
- 9월: 영의정 17세조 지산상공 심수현(沈壽賢, 1663~1736)
- 10월: 영의정 19세조 만포상공 심환지(沈煥之, 1730~1802)
- 11월: 영의정 20세조 두실상공 심상규(沈象奎, 1766~1838)
- 12월: 영의정 22세조 청령공 심순택(沈舜澤, 1824~1906)

2023년도 심문달력디자인위원회

- 위원장: 심익섭
- 위원(무순): 심춘섭, 심은석, 심주걸, 심재금, 심규순, 심인구, 심창래, 심상보, 심수지, 심윤보
- 사진: 심성영·심명환
- 삽화: 심설아

달력 제작자 일동은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이어받아 오늘의 청송심씨 일가들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국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3년 달력디자인위원회 첫회의(6월 8일)...왼쪽부터 심수지 위원, 심인구 위원, 심재금 위원, 심창래 위원, 심상영 문화이사, 심규순 위원, 심익섭 위원장, 심춘섭 위원, 심은석 위원

<2023년 심문달력 제작을 도와주신 고마운 일가분들>

 <p>(주) 바이오시스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 대표이사 심 광 보 TEL. 053) 853-1002</p>	<p>(주) 경우크린텍 회장 심 상 조 TEL. 02) 832-9955</p>
 <p>(주) 에스피시스템스 산업용로봇제조업 회장 심 상 균 TEL. 055) 371-5600</p>	<p>인방산업(주)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회장 심 재 봉 TEL. 02) 739-1591</p>
 <p>(주) 골든포우 회장 심 진 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12 포우빌딩 3층 TEL. 02) 554-4655</p>	<p>(주)정진푸드 역태전문기업, 호프 마른안주류 공급 대표이사 심 진 섭 TEL. 031) 202-3628</p>
 <p>(주) 천연기업 보·차도 경계석, 건축석 생산 및 전문 시공 회장 심 광 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46길18 (삼선숲하임3차 3층) TEL. 02) 2216~6387~9</p>	<p>(주) 선 광 항만물류 회장 심 장 식 TEL. 032) 880-6500</p>
 <p>청송사과 탕갓봉오뎡사과 사장 심 영 희 H.P. 010-3088-5900</p>	 <p>제일영재교육재단 이사장 심 재 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6 TEL. 02) 420-6600</p>
 <p>Starkey 스타키그룹 국내 보청기 판매 1위, 스타키보청기 대표이사 심 상 돈 TEL. 02) 465-0999</p>	<p>공성운수(주)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회장 심 재 선 TEL. 032) 882-0660</p>

일가분들의 도움으로 달력을 제작하고 배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기준 2023년 달력제작 관련 수입은 광고비 3,100만원, 지파종회 및 개인 협찬 1,218만원 등 총 4,318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중 광고비 3,100만원은 전액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이체되고, 달력 인쇄비 2,420만원, 달력디자인 및 운영 제경비 290만원, 국내외 배송비 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번 달력은 사전 신청분 외에 추가요청이 급증하여 수익금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찬해 주신 모든 일가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조님이시어! 후손들을 굽어 살피소서!

전국 곳곳서 추향제 봉행

시조 문림랑공(휘 洪孚) 추향제 봉행(10월 4일)



초헌관 심상현 도총제공종회장, 아헌관 심훈 대구총회장, 심상호 청주총회장, 종헌관 청송 심상익 이사, 청송 심홍섭 이사, 집례 심상철 악은공종회 상임부회장, 대축 청송 심상목 이사

4세조 청성백(휘 德符) 추향제 봉행(10월10일)



초헌관 심대평 대총회장, 아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종헌관 연천 심덕보 이사, 집례 심언태 총무이사, 대축 김포 심상홍이사

2세조 봉익대부공(휘 晟) 추향제 봉행(10월20일)



강원도 철원에서 2세조 봉익대부공(휘 晟), 3세조 판서공(휘 澣), 상호군(휘 卿) 추향제 봉행... 2세조 봉익대부공 추향제 초헌관 심대평 대총회장, 아헌관 심중복 사인공종회장, 종헌관 서울 심백섭 이사, 집례 심언태 총무이사, 대축 김포 심상홍 이사

7세조 망세정공 추향제 봉행(10월18일)



초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심대식 감사, 종헌관 심우관 이사, 집례 심창보 총무이사, 대축 심중혁 인수부윤공종회 부회장

6세조 판관공(휘 世叔)추향제 봉행(10월30일)



초헌관 심규보, 아헌관 심영우, 심준택, 종헌관 심의보, 심시진, 집례 심동섭 대총회부회장 대축 심상철 전 경북대 교수

2세조 합문지후공(휘 淵) 추향제 봉행(10월6일)



초헌관 심동섭 악은공종회장, 아헌관 심수영 전북총회장,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 종헌관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종회장, 대전 심철용 이사, 집례 심언태 총무이사, 대축 심상호 청주총회장

4세조 청성백(휘 德符) 배위 청주송씨 추향제 봉행(10월12일)



초헌관 심대평 대총회장, 아헌관 심상우 판사공종회장, 종헌관 심대섭 지성주사공종회장, 집례 심언태 총무이사, 대축 심영섭 부사공종회 명예회장

5세조 인수부윤공 추향제 봉행(10월12일)



초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심명섭 곡성 총회장, 종헌관 심규화 내금위공종회장, 집례 심창보 총무이사, 대축 심우경

인수부윤14세조 만사공(10월20일)



초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심종석, 종헌관 심우영, 집례 심창보 총무이사, 대축 심중혁 인수부윤공종회 부회장

7세조 이경공(휘 瀚)추향제 봉행(10월29일)



초헌관 심상인 이경공종회장, 아헌관 심총택 공숙공종회장, 종헌관 심상열 전 판관공종회장, 집례 심홍섭 효창공종회 고문, 대축 심양섭 전 사인공종회장

3세조 청화부원군(휘 龍) 추향제 봉행(10월 8일)



초헌관 심상현 도총제공종회장, 아헌관 심재문 부사공종회장, 종헌관 심창래 종보편집위원, 배위 초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심상호 청주총회장, 종헌관 심상열 원주·횡성총회장, 집례 심언태 총무이사, 대축 심영섭 부사공종회 명예회장

5세조 도총제공(휘 仁鳳) 추향제 봉행(10월12일)



초헌관 심상현 도총제공종회장, 아헌관 심재문 부사공종회장, 종헌관 대전 심철용 이사, 집례 심언태 총무이사, 대축 심영섭 부사공종회 명예회장

6세조 양혜공 추향제 봉행(10월15일)



초헌관 심재구 인수부윤공종회장, 아헌관 심상열 전 판관공종회장, 종헌관 심구형 이사, 집례 심창보 총무이사, 대축 심중혁 인수부윤공종회 부회장

5세조 현령공(휘 天柱)추향제 봉행(10월30일)



초헌관 심영수 현령공종회장, 아헌관 심영수 서울악은회 회장, 심중영 회장, 종헌관 심상국 이사, 심경보 이사, 집례 심동섭 대총회부회장 대축 심상철 전 경북대 교수

11세조 일송상공(휘 喜壽)영정포쇄사 봉행(11월 18일)



초헌관 심성규 효창공 종손, 아헌관 심영식, 종헌관 심원섭 효창공종회장, 집례 심홍섭 효창공종회 고문, 대축 심창래 효창공종회 이사

대중회 · 지파중회 활동 이모저모

청수회 본향 청송 선조유적지 답사(10월3일)



청수회(회장 심학섭, 앞줄 왼쪽부터 8번째)는 청송 보광산 시조 문림 랑공(휘 洪孚) 묘소 단체참배

남일 심수택 의병장 순국112주기 기념식(10월6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문화센터(주최 함평군, 주관 월야면 번영회)

캐나다 토론토중회 상욱 회장 대중회 예방... 장학기금 기부(10월27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달훈 대중회 감사, 심상욱 회장, 심상익 문화이사

2차 국혼포럼...한민족의 방향 제시(10월27일)



사단법인 삼일역사문화연구회(회장 심백강, 앞줄 왼쪽부터 6번째)가 경기도 양평 불암사 앞뜰에서 2차 국혼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 행사에는 심대평 대중회장(앞줄 왼쪽부터 7번째)을 비롯한 일가분들이 다수 참석하여 축하했다.

2022년 덕천문중 정기총회(11월 3일)



왼쪽부터 흥섭 약은공중회 부회장, 상억 문화이사, 상휴 청송군의원, 상목 이사, 길택 이사, 재환 이사, 상희 이사, 완택 이사, 행섭 이사, 상벽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뒷줄 왼쪽부터 상용 이사, 원섭 이사, 성환 이사, 재록 이사, 영섭이사, 순택이사, 재홍 전 찬경회관 관장, 이택 이사, 창섭 이사, 남규 이사, 은섭 이사, 상철 이사, 선택 유사, 재순 이사

안동선비문화박물관 예방(11월8일)



왼쪽부터 심우섭 안효공중회 부회장, 심대평 대중회장, 심재덕 안동선비문화박물관장, 심규섭 오산사복시정공중회 총무이사

제37회 강원감영문화제(11월13일)



왼쪽부터 심창섭 원주형성중회 총무, 심동섭 군수공중회 부회장, 심재근 이사, 심재광 군수공중회 총무, 심상열 원주형성중회장, 심재정 오산사복시정공중회 재무, 심규섭 오산사복시정공중회 총무, 심재목 원주중회 이사, 심하섭 원주중회 감사, 심재만 사인공중회 총무

청수회 경남위원회 발대식(11월12일)



청수회 경남위원회(위원장 심홍보-왼쪽 두번째줄 2번째, 총무 심진식-왼쪽 앞줄 첫 번째)는 청장년층의 결집과 경남지역 심문의 우애 증진과 화합도모를 위해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심동섭 약은공중회장 겸 대중회 부회장, 심재일 창원사복시정공중회장, 심학섭 청수회장 등 경향각지에서 많은 일가분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모산 심재완선생 11주기 추모행사(11월12일)



모산 심재완 선생은 국학자로, 서예가로 명망이 높았고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모산의 학문과 덕행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자와 친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모산학술연구소와 산하 동아인문학회를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박은희 재완 선생의 당질부)

청송심씨전북중회 정기총회(11월16일)



전북중회(회장 심수영)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부회장에 심재열, 심재중, 신임 총무에 심문섭, 신임 감사에 심한철, 심철웅 일가분을 각각 추대했다.

대학로 연극관람동호회(11월13일)



왼쪽부터 심은하, 심수지, 심가희, 심왕섭, 심원택, 심재금, 이창욱(심상익의 부인), 심상억, 심가영, 심재철, 심흥섭

청송심씨석촌공중회 이사회(11월18일)



첫줄 왼쪽부터 심관규, 심상영, 심상직, 심선택, 심상조, 심상정, 심상구, 둘째줄 왼쪽부터 심원섭, 심준섭, 심재환, 심상암, 심중섭, 심장섭, 심재오, 심상후, 심은섭, 심원철, 심광섭, 심상용, 심동훈, 심광열, 심상익, 심상박

축하합니다! 취임, 수상, 출간, 공연 대박



심보균 K-ESG평가원 원장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ESG
평가원장 취임(9월1일)



심우정 인천지검장
국제검사협회 신임 집행위원에 선임
인천지검장(9월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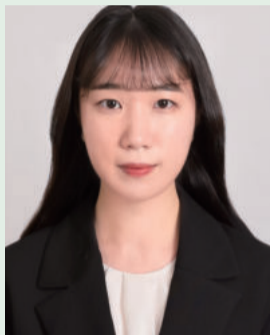
심규선 신임 이사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 이사장 취임(10월25일)



심인택 부산 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대통령 표창(10월13일)



심혜원 27세손, 심보석 일가분 따님
2022년 제39회 관세사 합격
(11월21일)



심주영 사무관
인사혁신처 수습행정관실
임용(9월3일)



심윤수 일가 부인 소설가 송은상
단편소설 「한지통」 출간(10월 15일)



심중숙 작가
〈미야자와 겐지와 한용운의 시 역설연구〉
출간(11월1일)



심만섭 남일 심수택 의병장 손자
청송심씨금호종중 공로패 수여받음
(10월4일)

제2회 용인케이아트 '춤' 축제(11월12일)



협동조합 케이아트 심규선 이사장(가운데 휠체어 탄 분)이 기획연출 한 공연 출연진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

〈연합뉴스TV〉(9월18일) ◇보직인사 ▲ 재무회계부장 심병한
〈연합뉴스〉(9월 29일) ◇보직인사 ▲ 총북취재본부 취재본부부장 심규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11월10일) ◇보직인사 ▲경영지원본부장 심재경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심명구 前 대총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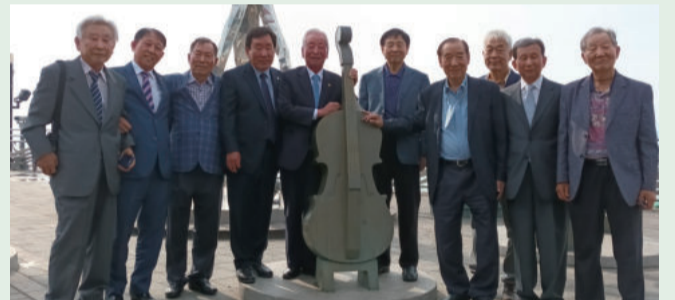
제2대 대총회장(1922~2008)을 역임하신 고 금병 심명구(주)선광 설립자의 탄생 100년을 맞아 '시간을 건너 당신에게로'란 주제로 심회장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전시회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간 선광미술관에서 열렸다. 대총회 임직원, 인수부유평파총회, 안효공총회, 주목회, 청심회 및 심우정 인천지검장 등 경향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관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및 언론사 간부모임인 주목회(9월26일)



왼쪽부터 상호 전 경찰서장, 우섭 총무(국정원 고위간부), 갑섭 회장(KBS 광주·대구방송총국장), 상대 KBS 순천방송국장, 상정 전 건설교통부 국장

인수부유평파총회(9월28일)



왼쪽부터, 광보, 창보 총무, 재근, 종혁 부회장, 재규 회장 대식 감사, 정구 명예회장, 종석, 춘식 감사, 구형 이사

안효공파총회(10월17일)



앞줄 왼쪽부터 우섭부회장, 정구 인수부유평파총회 명예회장, 무섭 회장, 영섭 부회장, 음식 운영위원, 뒷줄 왼쪽부터 관식, 봉섭 재무이사, 중식 이사, 효식 이사, 상관 이사, 재근 이사, 원섭 총무이사

대총회 임직원(10월11일)



왼쪽부터 재봉 인봉산업 회장, 대총회 대평 회장, 아우 정구 초대 문장, 재득 13상신송조사업 위원장, 장녀 현식, 조카 관식, 뒷줄왼쪽부터 조카 효식, 차녀 명식, 차남 충식 선광 대표이사, 장남 장식 선광 회장, 상영 문화이사, 익섭 오산사 복시정공총회장, 우창 인천 서구의원, 언태 총무이사, 규정 재무이사 (사진=창선 곡산공총회 총무)

수도권 청송심씨 모임인 청심회(10월31일)



왼쪽부터 응근(이하 존칭 생략), 영조, 재철 검사장, 봉보, 영철, 원택, 둘째줄 왼쪽부터 영미, 용섭, 상조, 정구 인수부유평파총회 명예회장, 화숙, 익섭 동국대 명예 교수, 수지, 셋째줄 왼쪽부터 재석, 성섭, 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윤수, 경섭, 진섭 골든포우 회장, 충식 청심회 회장, 재근, 재섭, 홍철, 효식

공지사항

1. 청송심씨중보 구독자 1만명 달성 협조요청

청송심씨중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 심문(沈門)의 종합 정보소식지입니다. 대중회는 가능한 많은 일가분들을 직접 종보지면에 참여케하고, 일가분들 중에 저명하신 편집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모범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대중회는 연회비 1만원 이상 찬조하는 구독자 1만명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중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중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2. 임원회비 납부안내

2022년도 임원 회비를 미납하신 분께서는 12월20일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부터는 임원회비 명목을 없애고, 대신 중보 또는 장학 찬조금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변경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 중보(달력)찬조금 송금계좌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 장학기부금 계좌 <농협 301-0256-8973-11 (재)청심장학회>

◎ 장학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바, 2022.3.21 일자로 장학금 일십만원(신한은행 폰뱅킹)을 입금하신 심동석 일가께서는 대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족보 사진등재 안내

인터넷 족보에 본인, 배우자, 가족, 묘소, 재실, 비석, 훈장, 표창장 등 사진들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년간 수시
○ 사진크기 : 증명사진(반명함) 이상, A4(210x297mm) 이하
○ 사진설명 : 본인(배우자) 사진의 이름, 기타 사진은 내용설명
○ 등재매수 : 1인당 10매 이내
○ 등재비용 : 1매당 1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2267-7857-81]
○ 사진제출 방법
1)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47. 찬경화관 5층 2) 메일 : set217@naver.com
○ 사진 제출 시 작성할 내용
본인(배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父)의 이름, 사진 설명, 인터넷족보 등재 상황(○권, ○○페이지)

2023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2023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지원자격, 선발인원, 선발대상, 선발방법, 수혜금액, 지원서류, 제출처, 제출기간, 면접일자, 장학금수여) and Details.

2022. 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장 심 대 평

● 금번 제5기 장학생 모집에 특히 외손들을 포함한 많은 영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심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찬조 2022.9.19.~2022.11.14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Grid of donor portraits and names with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 amounts and dates.

중보찬조 2022.9.19 ~ 2022.11.14)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중보찬조' category.

임원회비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임원회비' category.

장학찬조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for the '장학찬조' category.